

6월 30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6월 3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美 증시, 유가와 나란히 상승..다우 1.08%↑</p>	<p>뉴욕증시가 29일(현지시간) 오름세로 마감했음. 국제유가 반등으로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지지했고, 리세션 완화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90.99포인트(1.08%) 상승한 8,529.38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84포인트(0.32%) 오른 1,844.06을,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8.33포인트(0.91%) 상승한 927.23을 각각 기록했음.</p> <p>뉴욕증시는 장초반 약세를 보이기도 했음. 이날은 경기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개장초 단기 불확실성이 불거졌으며 생명공학업체 바이오젠이 개장초 의료주 약세를 주도한 점도 투자심리에 부담을 줬음. 그러나 국제유가가 반등세를 보이며 배럴당 70달러대를 다시 회복한데 힘입어 에너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며 뉴욕증시를 지지했고, 분기말을 맞아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 이른바 '윈도우 드레싱' 영향도 지수를 뒷받침했음. 여기에도 이번주에 예정된 고용 및 제조업지표가 리세션 완화 징후를 내보일 것이란 기대감도 살아나면서 뉴욕증시는 오전 11시를 전후로 상승세로 방향을 굳히는 모습이었음.</p>
<p>국제유가 반등</p>	<p>국제유가가 3%대의 반등세를 보이며 배럴당 71달러선을 기록하며 70달러대를 다시 회복했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당초보다 중기 원유수요를 하향 조정했지만 나이지리아의 반군이 로얄 더치 쉘의 석유 플랫폼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 니제르델타해방운동(MEND)은 이날 나이지리아 유전지대인 남부 니제르 델타의 석유수출항 포르카도스 원유 플랫폼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8월 인도분 가격은 장중 72.40달러까지 상승한 끝에 전주말대비 배럴당 2.33달러(3.3%) 상승한 71.49달러로 거래를 마쳤음.</p>
<p>日 5월 車 수출 55.9% 급감</p>	<p>일본의 지난 5월 자동차 수출이 전년대비 55.9% 급감하면서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다고 다우존스가 보도. 일본 자동차생산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23만3,217대가 수출돼 지난 해 같은 달 52만8,617대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쳤음.</p>

제목	주요 내용
BOJ부총재 "일본, 디플레 직면하지 않아"	야마구치 히로히데 부총재는 "최근 5월 소비자물가 지수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디플레에 직면해 있지 않았다"며 "CPI 급락의 최대 이유는 지난 해 유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그는 "지난 해 여름 이후 유류비용이 하락하면서 CPI도 완만한 하락세를 더 지속할 것"으로 전망.
한은, 한미 통화스왑자금 10억불 추가 회수	29일 한국은행은 만기가 도래하는 20억달러의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 외화대출 만기연장 효과를 위해 30일 오전 10시부터 10억달러를 경쟁입찰방식으로 대출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만기가 돌아온 금액은 모두 20억달러로 지난 4월7일 미국 연준과의 통화스왑으로 조달한 달러를 84일물로 시중에 공급했던 것. 한국은행이 만기가 돌아오는 20억달러 가운데 10억달러만 추가로 대출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10억달러를 시중은행들로부터 흡수하는 셈이 됨. 이에 따라 시중에 풀려나간 한미 통화스왑 자금 규모는 90억달러로 감소하게 됨.
아이폰` 누가 죽일 수 있나..`아레나폰` 1위	영국 정보기술 전문지 모바일 초이스는 지난 3월부터 2달간 애플 아이폰 킬러 휴대전화를 뽑는 `죽음의 대전(Death Match)` 이벤트를 열었음. 후보군에는 소니에릭슨의 `C905`, 림 `블랙베리 스톰`, 삼성전자 `픽슨`, 노키아 `익스프레스 뮤직` 등. 그 결과 LG전자의 아레나폰이 1위로 선정됐음.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전략폰을 물리치고 최고의 `아이폰 킬러`로 뽑힌 것"이라며 "최고 권위의 잡지에서 선정한 결과라 더욱 의미있다"고 말했음.
오남수 사장 "`FI 지분 + 경영권` 매각에 무게 실릴듯	금호아시아나는 대우건설 매각발표에서 매각·방식규모에 대해 재무적 투자자 지분 39%+ 경영권, 50%+1주, 72%(투자자 39%+ 그룹 보유 33%) 전략 매각 등을 놓고 인수자측 사정과 시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었음.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오 사장은 "대우건설 풋백옵션에 대한 시장 의심과 오해가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면서 결국 대우건설을 팔아 시장 우려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했다"고 말했음. 오 사장은 특히 대우건설 인수 당시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 외의 대규모 지분을 매입한 게 아쉽다고 토로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